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29호  
2024.11.21.(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통상** 美 하원, 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법안 발의
- EU·에너지** EU, 보편관세 막기 위해 美에 LNG 추가 구매 의사 표명
- 중국·원자재** 中, 오는 12월부터 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수출세 환급 종료
- 미국·화학** 美, 韓·中 등 5개국 에폭시 수지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통상**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정책 추진 동향

### 원자재 뉴스 PLUS

- 원자재** 러시아, 對美 우라늄 수출 일시 중단

## II. 월간 공급망



알제리 나프타 공급망 동향

##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24

## IV. 공급망 소식통



202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1/28까지 접수)

2025년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

※ 제130호는 한 주 휴간 후 12.5.(목)에 발간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KO/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미국, 통상 美 하원, 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법안 발의

11.14일(현지시간) 존 물레나 美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견제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는 무역 공정성 복원법을 발의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당 국가가 매년 새로운 심사 없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자격

- 동 법안은 ▲관세 명문화, ▲전략물자 대상 최소 100% 관세 부과, ▲非전략 상품에 35% 이상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계획
- 또한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를 허용하는 미소기준(De minimis) 조항이 폐지되며, 관세의 일부는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군수품 구매에 활용 예정
- 한편 美 싱크탱크는 중국 PNTR 지위 철회 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무역적자 확대, 중국의 대응 조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제기

핵심 키워드

PNTR

무역공정성복원법

출처: 미 하원 중국특위 보도자료(24.11.1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83호(24.11.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EU, 에너지 EU, 보편관세 막기 위해 美에 LNG 추가 구매 의사 표명

1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편관세 부과 저지의 방법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미국산 LNG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고 보도

- 동 제안은 '18년 前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산 LNG와 대두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며 추가 관세 갈등을 피한 사례와 유사
- 집행위원장은 “현재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를 통해 많은 양의 LNG를 공급받고 있으며, 저렴한 미국산 LNG로 대체하면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


핵심 키워드

LNG

보편관세

출처: 폴리티코(24.11.8),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74호(24.11.1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중국, 원자재 中, 오는 12월부터 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수출세 환급 종료

 11.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재무부는 오는 12.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인하하거나 종료한다고 발표

- ➡ 中 정부는 구리와 알루미늄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종료하고, 일부 정유 제품·태양광·배터리·비금속광물 제품의 수출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인하
- ➡ '20.3월부터 '21.12월까지 9만 개 이상의 中 기업이 약 52억 달러(약 7조 2,400억 원)의 수출세 환급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
- ➡ 한편, 동 발표 후 중국산 알루미늄의 해외 공급 감소 우려로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


핵심 키워드

수출세 환급

알루미늄

출처: 블룸버그('24.11.15), 로이터통신('24.11.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미국, 통상 美, 韓·中 등 5개국 에폭시 수지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11.7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5개국\* 제조사 대상 에폭시 수지 반덤핑 예비 판정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산\*\*의 경우 16.02~24.65%의 덤핑마진 산정

\* 한국, 중국, 인도, 대만, 태국 / \*\* '23년 한국의 對美 에폭시 수지(HS Code: 390730) 수출 규모 : 약 2억 달러

- ➡ 중국의 경우 中 전역 법인 대상 마진율 354.99%가 책정되어 5개국 가운데 최고 마진율을 판정받았으며, 韓·中·印·대만은 부당 보조금 혐의가 적용되어 상계관세 조사도 병행 중
- ➡ 향후 '25.3.27일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판정 및 '25.5.12일 USITC 산업 피해 최종 판정을 거쳐 '25.5.19일 관세 부과 명령 순으로 진행 예정

핵심 키워드

반덤핑

에폭시 수지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82호('24.11.12), 한국무역협회 K-Stat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미국, 통상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정책 추진 동향

- 11.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기 정부 무역 정책을 총괄할 라이트하이저 前 USTR 대표는 즉시 관세 인상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 전략을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
- 트럼프 당선인은 라이트하이저를 의회 인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백악관 정무직에 임명하여 관세 공약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관측

### 주요 관세 인상 방안

####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 |     |  |
|-----|--|
| 개 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대통령은 안보·외교·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제재·수입 금지·금융거래 중단 등 직권 명령 행사 가능</li> <li>무역법 301조·무역확대법 232조 등을 적용할 경우, 대통령 관세 명령 시행에 앞서 피해 조사 등 별도 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하여 최소 수개월이 소요</li> </ul>  |
| 사 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2.8월 닉슨 대통령은 불공정 환율을 문제로 국가 비상을 선포,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명령</li> <li>일본·서독 등 G10 국가와 협상 진행, 환율 조정에 합의 후 관세 종료('72.12.20일)</li> <li>'19.5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목적으로 멕시코産 수입에 5% 관세 부과 성명 발표</li> <li>이후 멕시코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 의사를 수용하여 관세 명령 중단('19.6.7일)</li> </ul> |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 |       |   |
|-------|---|
| 개 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과 관세율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美 대통령에 강력한 협상 권한을 부여, 협상 불발 시 대통령이 협상국에 상응하는 징벌적 관세 명령 가능</li> <li>외국이 美 기업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美 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li> </ul> |
| 기대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터 나바로 前 백악관 무역·제조업 위원장은 미국이 외국과 같은 관세율 부과 시 무역적자 640억 달러(약 88조 9,300억 원) 축소 효과가 있음을 주장</li> <li>다만 일부 의원은 트럼프 관세가 초래할 수 있는 국제 무역 분쟁이 자국 농산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li> </ul>    |

핵심 키워드

보복관세

상호무역법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4.11.15),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84호('24.11.1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원자재 러시아, 對美 우라늄 수출 일시 중단

11.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우라늄 공급 국가인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

금번 조치는 지난 5월 美 정부가 '28년부터 러시아産 우라늄 수입 금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는 현재 주요 전략 광물의 해외시장 공급 제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

###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2주)

비철금속 | 美 달러 강세로 동 가격↓, 美 전기차 보조금 삭감 우려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동	8,478	9,173	8.2	9,410	9,010	△4.3
니켈	21,474	17,060	△20.6	15,931	15,616	△2.0
아연	2,647	2,729	3.1	3,011	2,947	△2.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美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달러 가치 상승하면서 전기도 가격 하방압력 발생

세계 1위 구리 광산기업인 칠레 국영 Codelco社は 내년 中 전기도 판매 프리미엄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상기 하방압력 부분 상쇄

(니켈) 美 차기 정권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전망에 따른 원재료 수요 둔화 우려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철강 | 中 철광석 수입 확대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6.26	△21.4	143.63	143.09	△0.4
원료탄	295.71	249.44	△15.6	204.60	206.20	0.8
철광석	119.32	111.40	△6.6	104.94	100.86	△3.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中 북부지역 동절기 진입에 따른 주요 철강 지역 조강생산 규제 전망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유연탄) 계절성 수요둔화에 따른 가격 소폭 하락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2주)

희소금속 | 기온 하락에 따른 中 생산 감소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14	△4.1	1,150	1,150	-
탄산리튬	35,697	12,945	△63.7	10,479	10,737	2.5
수산화리튬	37,972	11,922	△68.6	9,597	9,504	△1.0
코발트 (U\$/lb)	17.82	16.46	△7.6	15.50	15.43	△0.5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2,718	△20.5	247,500	243,900	△1.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5,160	△29.6	60,550	60,550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탄산리튬) 中 최대 리튬 매장지 칭하이성의 기온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전주 대비 가격 상승세 지속
- ☐ (코발트) 미국 內 중국産 코발트 대신 인니産 코발트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
- ☐ (희토류)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감소 전망으로 전기차 시장 약세가 이어지며 영구자석 수요 둔화 지속

에너지 | OPEC 세계 원유 수요 전망 하향, 美 허리케인發 공급 차질 완화로 원유 가격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11.1주	11.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0.51	△1.59	73.75	71.67	△2.08
브렌트유	82.17	80.76	△1.40	75.01	72.14	△2.87
WTI	77.60	76.60	△1.00	71.58	68.32	△3.26

-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OPEC 원유 수요 전망 하향, ▲美 허리케인發 원유 공급 차질 완화로 유가 하방압력 발생
    - ☞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4~'25년 세계 원유 수요 증가 규모 전망을 각 182만 b/d, 154만 b/d로 전월 전망치 대비 약 10만 b/d 하향하며 4차례 연속 수요 전망 하향 조정
    - ☞ 美 안전환경집행국(BSEE) 발표에 따르면 11.9일(현지시간) 기준 허리케인 Rafael의 영향으로 美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의 약 28%가 생산 중단되었으나, 11.12일 기준 10.51%로 생산 차질 규모 완화

월간 공급망

알제리의 나프타 공급망 동향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알제리의 정유산업 구성

알제리의 석유·가스 산업은 수출의 약 90%, 재정의 약 6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알제리는 5개 지역에 정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약 3,070만 톤에 달한다. 5개 지역 중 스킨다에 위치한 RA1K단지와 RA2K단지가 주요 생산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알제리의 정유시설 처리능력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14년 약 2,462만 톤 규모에서 '18년 약 2,700만 톤을 거쳐 '23년 3,070만 톤 규모에 달했다. 정유제품의 약 52%는 국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 48%가 수출되고 있다. 아울러 알제리 정유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표 1] 알제리의 주요 정유시설 현황 (단위: 톤)

연번	단지명	소재지	처리능력(연간)
1	RA1G	알제(Alger)	3,645,000
2	RHMD2	하시메사우드(Hassi-Messaoud)	1,110,000
3	RA1D	아드라(Adrar)	600,000
4	CPIZ	알주(Arzew)	152,000
5	RA1Z	알주(Arzew)	3,750,000
6	RA1K	스킨다(Skikda)	16,500,000
7	RA2K	스킨다(Skikda)	5,000,000
8	CP2K	스킨다(Skikda)	130,000

[자료원] 소나트랙(Sonatrach, 알제리 국영석유기업) 연례보고서

알제리의 나프타 생산 개황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35~220°C의 끓는점 범위에서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며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된다.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합성수지나 합성섬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알제리의 경우, 알제리 북동부 스킨다에 위치한 RA2K단지에서 나프타를 생산 중이다. 연 생산능력은 400만 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 단지의 전체 생산능력 중 약 83%에 해당한다.

알제리의 나프타 수출 및 가격 동향

알제리의 경우 '18년 이후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무역데이터 기업인 OEC에 따르면 알제리는 '22년 86억 2,435만 달러의 나프타를 수출하였으며 **한국은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알제리의 최대 나프타 수출대상국** 위치를 차지하였다. 한국 외에도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이 활발한 편이다.

[표 2] '21~'22년 알제리 나프타 수출대상국 및 수출금액 (단위: 달러)

연번	국가명	'21년 수출액	'22년 수출액
1	한국	1,143,147,334	2,207,333,278
2	미국	841,486,001	1,880,970,055
3	독일	333,099,180	739,362,999
4	싱가포르	946,672,639	708,349,076
5	중국	705,732,361	595,435,256
6	네덜란드	178,055,489	433,680,090
7	일본	271,256,330	398,805,248
8	스페인	229,832,685	300,461,290
9	프랑스	575,686,117	247,257,077
10	이탈리아	64,024,256	201,088,401
총 계		6,409,737,206	8,624,354,180

[자료원] OEC

나프타의 국제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19년에만 해도 톤당 526.38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785.71달러로 급등하였으며 '24년에도 68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19~'24년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동향 (단위: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1분기	'24.2분기
원유(두바이유 기준)	63.59	41.42	69.26	96.90	82.00	81.55	85.56
나프타	526.38	372.65	647.94	785.71	646.31	681.20	687.21
에틸렌	891.87	700.81	1,046.67	1,007.62	841.82	918.25	872.50
프로필렌	915.31	791.36	1,041.75	995.00	858.78	842.58	854.33
HDPE	911.96	791.19	1,062.63	1,009.44	891.33	898.08	911.00
PP	1,029.65	870.56	1,139.40	1,036.31	879.26	873.00	916.17

[자료원] e-나라지표, 한국석유화학협회(KPIA)

## 📌 對韓 교역 동향

- ▶ 나프타는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교역에 있어 '19년 이후 부동의 제1위 수입품목이며 '23년에는 22억 2,324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24년에는 8월까지 15억 9,401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하였다. '21년까지 수입액이 10억 달러 규모였으나 '22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표 4] '20~'24년 한국의 對알제리 주요 원자재 수입액 동향 (단위: 천 달러)

MTI코드(4자리)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8월)
1334	나프타	476,439	1,273,321	2,492,228	2,223,235	1,594,014
1310	원유	423,432	611,656	827,905	767,753	788,504
1340	천연가스	-	-	38,330	159,807	-

[자료원] 무역협회

- ▶ 중량 기준으로 봐도 '18년 126만 톤 수입에서 '23년 326만 톤 수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224만 톤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하였다.

[표 5] '19~'24년 對알제리 나프타 수입 중량 변화추이(단위: 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8월)
2,394,151	1,089,863	2,042,098	3,112,817	3,261,077	2,241,040

[자료원] 무역협회

- ▶ '24년 1~8월 기간 중,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알제리를 비롯해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인도 등지에서 나프타를 조달하였다. 알제리는 '23년과 '24년(1~8월) 한국의 나프타 수입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22년에는 인도에 이어 3위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21년에는 러시아가 한국의 나프타 수입국 1위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여파로 '23년 이후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여파로 알제리, 쿠웨이트, 오만, 나이지리아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 📌 생산 및 수출규제

- ▶ 알제리는 관련 규정(Decree No.21-320)으로 나프타 등 정유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정유산업은 국영석유기업인 소나트랙(Sonatrach) 혹은 소나트랙과 연관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시 알제리 관세청에 고객사명, 공급가, 물량, 인보이스, 물류정보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FTA가 체결된 EU,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진행하게 된다.

## 관련 정책

- 알제리는 몇 년 전부터 외국 투자기업이 최대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49/51 Rule'을 폐지하여 일반적인 분야의 경우 100% 투자가 가능해졌다. 다만 석유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나프타 생산을 포함한 정유사업 투자 시에는 여전히 최대 49%까지의 투자만 가능하다. 알제리가 지정한 전략산업은 광물산업, 석유·가스의 개발 및 전력송배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산업, 방위산업, 기간산업(철도, 항만, 공항), 제약산업(일부 혁신적 투자는 허용) 등을 의미한다.

[그림 1] 소나트랙의 주요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



[자료원] 소나트랙(Sonatrach) 웹사이트

\* 청색 원 표시 구역이 나프타 생산 지역

## 시사점

- 알제리는 나프타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국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계획하고 있다. 소나트랙은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석유화학 및 정유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제품인 나프타, 에탄 등을 활용해 에틸렌 등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년 소나트랙은 중국국영 화학건설사 CC7과 MOU를 체결하고 스킵다에서 생산하는 나프타와 GL1K에서 생산하는 에탄을 활용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개시하였다. 알제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프타 공급을 확대하여 '23년 이후 우리나라의 나프타 조달 대상 2위 국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물류 여건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Sonatrach, OEC, 알제리 정부 웹사이트, 무역협회 등 KOTRA 알제무역관 자료 종합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 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24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4.10.28)

**원문** IEA(2024.10.16) World Energy Outlook 2024

IEA는 에너지안보, 청정e 전환 속도, 불확실성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에너지효율향상, 전기화, 재생e 보급 속도 증가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에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 📖 세계 에너지 전망 2024의 주요 주제

- 🔍 IEA는 세계 에너지 전망 2024에서 **에너지안보,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 불확실성** 등의 3가지 주제에 주목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평가
  - ▶ **(에너지 안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확보는 필수**
    - '23년 시작된 세계 에너지 위기의 단기적 여파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향후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 필요
  - ▶ **(불확실성)** 관련 정책과 전략의 단기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정치적 불확실성)**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80개국에서 '24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에너지·기후 문제는 높은 연료·전기 가격, 홍수, 폭염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동 분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 세계 석유 및 LNG 공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임
  - ▶ **에너지 정책과 기후 목표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청정e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청정e 부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비용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따라서 에너지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하나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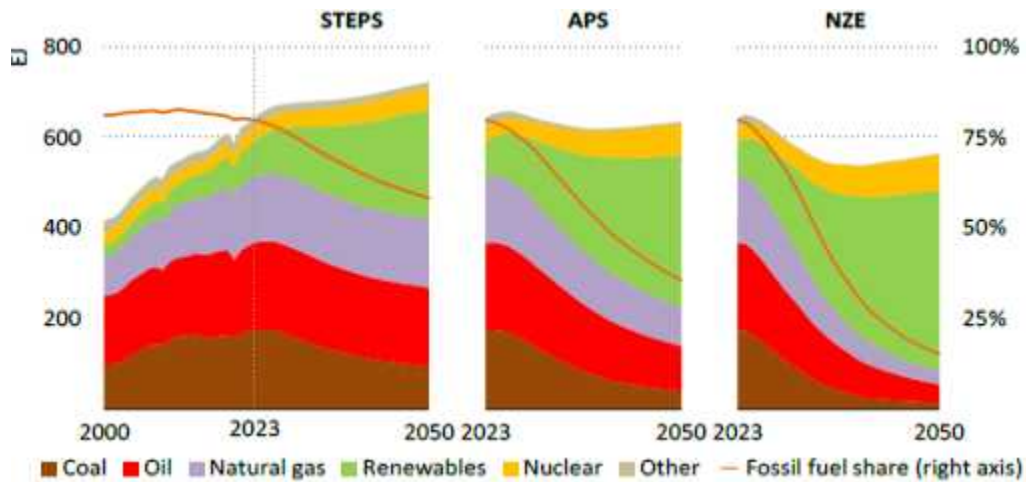
#### 📖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 🔍 IEA의 모든 전망 시나리오\*에서 세계 에너지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된 요인은 에너지효율 향상, 전기화, 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임

\* 현상황유지 시나리오(STEPS): 현 정책이나 공약이 유지되는 시나리오, 공약달성시나리오(APS): 발표된 에너지·기후 공약이 달성되는 시나리오, 탄소중립시나리오(NZE):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 **(전망)** '23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약 640EJ(exajoules)에 달하나, '35년까지 STEPS에서는 680EJ로 증가하고, APS에서는 625EJ로 감소하며, NZE에서는 540EJ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APS와 NZE에서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STEPS에서는 유일하게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개도국과 신흥국에서의 수요 증가를 유발
- ▶ 모든 시나리오에서 화석연료 수요가 '30년까지 정점에 도달한 후,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의 보급 증가로 점차 감소
- '23년 화석연료 비중은 80%에 육박하지만, '50년까지 STEPS에서는 60% 이하, APS에서는 약 35%까지, NZE에서는 약 15%미만으로 감소

[그림 1] 시나리오별 세계 에너지 수요와 화석연료 비중 (2000~2050년)



##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에너지안보, 회복력, 유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축되어야 함
- ▶ STEPS 하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50년까지 석유 수입의존도가 90%, 가스 수입의존도가 6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수입국에서 해당 우려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인해 전력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이며, 전력 수요와 변동성 에너지원(재생e)의 증가로 인해 단기 및 계절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가 중요
  - 이를 위해 전력망 및 배터리 저장설비에 대한 전력부문의 투자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 극심한 기상 현상 및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전력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력 및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
- ▶ 현재 에너지 및 기후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변화에 따른 저소득 국가·지역사회·가구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수
  -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성 부족은 오늘날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인데, 개도국에서는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프로젝트 위험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움
- ▶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세계는 아직 기후 목표 달성 경로에 안착하지 못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공급망 소식통

### ◆ 202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1/28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2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새롭게 펼쳐질 세계시장의 청사진'

2024.12.4(수) 10:00~17: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올해로 26회 째 개최되는 KOTRA 대표 수출 전략설명회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 KOTRA 10개 해외본부장 현장강의
  - \* 북미/유럽/일본/중남미/아프리카/중동/러시아CIS  
중국/서남아/동남아대양주
- 참가비 : 110,000원(VAT포함)
  - \* 중식, 설명회 자료집, 10개 권역별 진출전략 책자제공



↑ 참가신청 QR스캔

## ◆ 2025년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개요

- 일시: 2024.12.12.(목), 13:30~17:10
- 장소: 코엑스 아셈볼룸 201~203호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참가비: 무료

### □ 프로그램

시간	세부 내용	연사
13:00~13:30('30)	등록	
13:30~13:35('5)	개회사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
〈1부: 2025년 수출입 환경 및 전망〉		
13:35~13:55('20)	세계경제 및 한국 무역 전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우중 연구위원
13:55~14:20('25)	글로벌 금리 및 환율 리스크	KB 은행 자본시장그룹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14:20~14:50('30)	IT·반도체 산업 동향 및 전망	산업연구원 김양평 전문연구원
14:50~15:20('30)	신흥국 경제 동향 및 전망 -인도,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장
15:20~15:40('20)	커피브레이크 및 기업교류	
〈2부: 2025년 주요 통상 이슈 및 전망〉		
15:40~16:10('30)	세계 통상환경 점검 및 전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
16:10~16:40('30)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전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16:40~17:10('30)	ESG 통상 2.0 시대 과제와 대응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이준희 센터장

### □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후 하단에 표기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 02-6000-5049/5207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 ☎ 02-6000-5601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 글로벌 경제지표 ['24.11.19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8말	11/15	11/18	11/19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6.00	1,398.80	1,395.20	1,390.90	△0.31	7.99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3.30	1,397.70	1,397.60	1,389.30	△0.59	7.97
₩/CNY	181.44	181.37	187.56	193.91	192.96	192.11	△0.44	5.92
₩/¥100	945.56	912.25	921.19	895.00	903.45	899.97	△0.39	△1.35
¥/U\$	133.73	141.19	145.03	156.29	154.43	154.55	0.08	9.46
U\$/EUR€	1.0617	1.1105	1.1077	1.0537	1.0543	1.0588	0.43	△4.66
CNY/U\$	6.9630	7.1092	7.0934	7.2348	7.2403	7.2349	△0.07	1.77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6.5원, (₩/¥100) 897.0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11/18	11/19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0.53	72.27	1.7	2.0	△4.8
					2.5%	2.8%	△6.2%
철광석	97.35(5.24일)	140.50	99.90	101.85	1.9%	4.5%	△38.7%
					2.0%	4.6%	△27.5%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859.50	60.0	1107.0	443.5
					0.7%	14.2%	5.2%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63.00	20.5	515.0	248.0
					0.8%	24.9%	10.6%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290.00	340.0	△255.0	△670.0
					2.2%	△1.6%	△4.1%

###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9말	'24.10말	11/14	11/15	11/18	11월(~1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96	1.91	1.84	1.84	1.83	1.84
(%, YoY)	29.9%	△23.0%	△14.8%	33.0%	23.4%	11.0%	10.8%	9.7%	11.1%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71	6.75	6.68	6.68	6.65	6.70
(%, YoY)	14.7%	10.7%	△2.3%	6.1%	5.4%	3.9%	3.9%	3.5%	4.3%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11/1	11/8	11/15	전주비(11/8)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303.44	2331.58	2251.9	△3.4%	28.0%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11/14	11/15	11/18	11/19	전주비(11/18)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692	1785	1756	1627	△7.3%	△22.3%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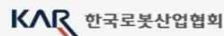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 협력기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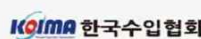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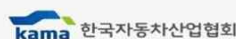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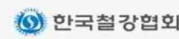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